

水營遺史

本 水營遺史는 水營에 대한 많은 愛鄉心을 갖고 古蹟 民俗 등의 분야에 걸친 研究를 계속하던 故 崔漢福씨의 遺稿이다.

故 崔漢福씨는 물론 專門인 學者가 아니고 하나의 愛鄉心에서 이러한 記述을 남긴 것으로 本稿는 學問의으로 檢討되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으나 關係 資料가 稀貴한 지금 많은 參考가 될것으로 믿고이에 收錄하였다.

故人의 生存時에 收錄에 관한 內諾을 받았으나 冊이 나오기 전에 老齡으로 作故하신 것을 밝혀둔다.

葦山國과 蓬萊駭時代

水營의 上古史를 記述하는데 있어서 文獻에 依存한 것은 적다. 그렇다고 해서 神話나 浪話에 依據한 것은 아니고 確固한 遺跡과 信憑할 만한 傳說을 土臺로 한 考證的 立場에서 쓴 것이다. 水營이 蔚山 開雲浦에서 移轉했을 때 無人 曠野에 水使營만이 移動해 왔을理 萬無하고 이미 住民의 村落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村落의 前身이 葦山國으로 생각된다.

葦山國誌에 大發名 三十各하여 伐伽倻國했다는 記錄이 있는데 現葦山頂을 踏査하면 平濶한 舊墟에 集團居住하던 人家의 遺跡과 祭天하던 大岩을 볼 수 있다. 그러나 山下의 玉土를 버리고 山上을 擇한 理由가 어데 있었을가가 疑問인데 當時 小部族國家로서 遠近 大部族國家의 壓迫을 避하고져 하는데 原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駕洛國을 征伐한 것을 보면 이때 駕洛國이 極度로 衰微하여 新羅에 降付할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던 당시 現水營에 小部族國家인 葦山國이 있었고 뒤에 新羅에 併合된 것이 事實이다.

그 뒤 時代의 變遷에 따라 西部平野 一帶에 新羅의 縣部가 新設 되었는데 西北은 山麓이 屏立하고 東은 河川이 長流하여 三角洲를 이루면서 바

다에 들어가 南部釜山까지 연결되어 魚族이 풍부하며 平野는 廣闊하여 農産에 適合하므로 新羅는 蓬萊縣을 設置하고 縣監으로서 行政을 掌握하게 한 것이다.

外賊을 防禦하기 위한 흙으로 된 城壁은 타원형으로 그 주위가 6杆에 達하고 있는데 그 役事의 勞力이 石城보다 많을 것임을 생각할 때 當時의 人口密度를 推想할 수 있다. 그 城趾로 考證할 때 城의 西門은 現 望美洞 870番地에 該當하고 北門은 望美洞 640番地에 該當하며, 南間은 遠水井後路를 지나 造泡谷으로 通하는 途中 山路에 小石垣가 있는 廣安洞 937番地에 該當한다. 官衙의 位置는 現陸軍病院 中階段 691番地에 該當하고 北쪽의 獄城谷은 당시 獄의 所在地이며 東北의 새양골은 書院의 所在地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其他 遺物과 院跡을 살펴보면 한 舊墟에서 發掘된 出土品은 新羅磁器 등이 많으나 墓의 樣式은 高麗葬式이다.

이것은 高麗時代까지 이 地方에서는 先祖의 器物 及 傳受傳代해서 使用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現 水營 東門外에 崔瑩將軍을 紀念하여 即今까지 住民들이 香火를 不絶하는 것으로도 그 時代가 高麗時代인 것은 분명하다. 崔瑩將軍은 麗末 李成桂와 同時期의 武班이며 東南海岸 住民에 대한 侵奪이 莫甚하던 倭寇을 討平하여 住民을 救濟했기 때문에 功德을 紀念하는 것이다. 善山金氏家譜에 「金可行公이 前任 東萊縣令으로 鹽場官 朴仲質과 參贊朴威과 高麗王氏 朝復位를 圖謀하다가 發覺되어 拿捕治罪라 一家가 分散亡命했다」는 要旨의 明記가 있는 것으로 보아도 蓬萊縣이 麗末까지 存續한 것은 歷史가 證明하는 바이다. 한편 水營 東門 內의 岩石等에 石花(꽃정지)가 附着하여 있고 現 市場 近處를 5.6尺 許만 掘하면 貝殼積推가 露出하며 지금 부터 60餘年前까지만 해도 各處의 商船들이 水營 前江까지 碇泊하던 것으로 보아 當時 水使虞候 軍艦 碇泊處는 現陸地로 變換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는 現水營 東南半部는 水淺한 海面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李朝初葉부터 壬辰亂까지

金景錫을 初代水使로 한 歷代水使 列舉錄 頭書에 「本 水營이 蔚山 開雲浦에서 東萊 南十里 許에 移轉하였다가 截蠻里로 移動하였고 18年을 經하여 다시 本水營으로 復歸하였다.」는 記錄이 있고 또 一然의 三國遺史에는 「新羅王이 般遊하다가 不意에 雲霧遮日하여 咫尺을 分別치 못하여 主人 老漁夫에게 緣由를 물으니 此地에 龍의 作亂이 간혹 있다 하였다. 王이 卽時 酒果로서 龍에 祭하고 香火를 不絶케 함에 雲霧가 卽卷하였다. 自此로 開雲浦라 이름했다.」는 內容의 記錄이 있는 것으로 보아 現在의 伺處인지는 未詳이나 慶州서 不遠한 地名일 것으로 생각되며 土城의 蓬萊縣이 麗末에 國家와 運命을 같이하고 李韓에 들어와서 國家萬年大計를 刷新할 때 부터 前 新羅 高麗가 國都防備에만 置重하여 海軍要地를 蔚山 開雲浦에 備置함은 國防策의 大計가 아니라 하여 倭寇의 關門인 現水營으로 擇定했을 것이다. 그뒤 海軍要地를 海岸에서 奧地인 水營에 設置함은 적당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어 一線 海岸인 勘蠻里로 다시 移遷한 것이다. 그러나 海軍의 最大要地를 直衛海岸 一線에 두는것은 萬一의 境遇 後備의 餘地가 없어 곤란하므로 一線海岸에는 傳將 民萬戶를 數處에 설치하여 萬全을 期하고 本營은 後方의 確固한 陳城에 設置하는 것이 戰船上 必要하다고 생각되어 또 다시 水營으로 復歸한 것으로 推想된다.

歷代 水使記錄에 의하면 壬辰前 水使는 34名이다. 壬辰 當時 水使는 朴泓인데 付錄에 壬辰後 水使에 관해서는 前任地 後任地 및 到任 年月日까지 記載되어 있으나 壬辰前의 것은 亂中 流失이라 하여 水使의 氏名만을 記錄한 것을 보면 34名 外에도 幾名이 더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다.

水使營移轉에도 있는데 營誌에 記錄된 東萊南十里許라는 곳은 西面 新生水營 電車停留所 近處로 처음 이곳을 옮겼다가 다시 現水營으로 移轉한 3年 後에 壬辰亂을 當하였다는 說이 있다.

壬亂當時 水使 朴泓은 孤軍片城으로 倭軍을 當할수 없어 晉州와 合勢하여 禦敵하기 위해 棄城而去라는 說이 있다. 主將을 잃은 水營은 無將之卒로 秩序의 紊亂함은 勿論이고 或聚 或散했다.

主戰論과 非戰論의 意見이 百出하여 民心이 分散되고 賦民財와 家畜을

奪取하며 老弱과 婦女에 無禮한 蠻行을 恣行하므로써 25人的 義士가 奮然히 義族를 들고 일어선 것이다.

뒤에 水營山寧西北 後山麓에 壇을 築하고 이 25義士의 碑를 세워 義勇堂이라 이름하고 春秋로 祭祠하니 最初는 本營門에서 水使가 主祭하다가 罷營後에는 面에서 面長이 主祭하였고 日人面長 赴任時로부터는 水營耆老會에서 主祭했다. 祭日是 每年 3月 및 9月의 丁日이 罷祭日로 固定되었다. 釜山 鄭公壇과 東萊宋公壇은 壬辰即後에 國家에서 調査하여 築壇立碑하고 그 忠節을 褒賞케 하여 春秋로 香火를 不絶케 하였으나 水營만은 官尊民卑의 因習과 主射의 不死逃走로 不間을 放置하므로써 25忠魂이 草野에 含冤케 된것을 戰後 17年에 東岳 李公知府使가 慨惜케 生覺하여 그 血忠報國의 實을 朝廷에 報告褒賞케 했고 그뒤 吳公翰 凜伯의 其忠節에 대한 調査陳情 節度使 玉山 張寅植과 承旨完山 李亨夏의 論功狀啓등에 의해서 築壇立碑하고 春秋로 祭祀케 되었다.

壬辰倭亂 以後

壬辰倭亂은 實로 우리나라 未曾有의 大兵亂으로 7年間 水陸大戰이 釜山서 義州까지 繼續展開 되었으니 國家 民族의 被害와 苦難은 이루 形言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그 復舊 收拾이 短時日에 될 일이 아니었고 따라서 水營도 戰亂後 復舊를 計하기 44年에 毳蠻里로 移轉케 되었다.

먼저 그 理由와 年代를 巧究하여 본다. 前壬辰의 失敗는 原因이 사람에게도 있지만 특히 地理에도 있기 때문에 水營도 奧地를 버리고 直衡要塞地인 一線으로 移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移轉 年代는 左水營建設沿革書에 「本營之設在於同代而始設於蔚山府舊開雲浦移建東萊府十里許南村之地不知何年而經南寇後崇禎乙亥移建於南距二十里勸蠻里浦過十八年後順治壬辰移建舊基」로 記錄된 것으로 보아 壬亂 後인 것이 分明하다.

南寇란 壬辰倭亂을 指稱한 것이며 崇禎은 後金 第二代王의 年號이니 崇禎乙亥는 同王 八年으로서 朝鮮 朝의 仁祖 13年 즉 檀紀 3968年(西紀1635)

이다. 그리고 順治壬亂은 同王 9年으로서 朝鮮朝의 孝宗3年 즉 檀紀 3985年(西紀1652年)이다. 따라서 壬辰亂후 水營을 戡蠻里로 移轉한 것은 壬辰亂이 일어난지 43年 뒤인 仁祖 13年이며 그뒤 18年 後인 孝宗 3年에 다시 舊基로 移遷한 것을 알 수 있다.

原因이 사람에게도 있었지만 특히 地理에도 있었기 때문에 水營도 奧를 버리고 直衝要塞地인 戡蠻으로 移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年代에 있어서는「左水營建設沿革書에「本營云設在於伺代而始設 於蔚山府舊開雲浦移建東萊府十里許南村之地不知伺年而經南寇後崇禎乙亥移建於南距二十里戡蠻里浦過18年後順治壬辰移建舊基」라 記錄된 것으로 보아 壬辰亂 後인 것이 分明하다. 南寇란 壬辰倭亂을 指稱한 것이오 崇禎은 中國年號이니 3963년에 該當한다. 崇禎乙亥는 同8年으로써 단기3968年(仁祖13年)(1965年)에 해당한다.

崇禎元年是 庚午年이다. 따라서 前記沿革書의 崇禎乙亥는 康午에서 5年 後이니 단기3968年에 該當하고 壬辰亂이 일어난 해가 檀紀3924年이므로 水營移轉年代는 壬辰亂 後 44年에 該當하는 것이다.

檀紀3985년에 해당한다.

<城 壁>

城壁과 軍器는 戰後 修理가 通例이다. 水營도 壬辰亂 後에 修理를 했겠지만 移轉說이 懸案되었고 其後 戡蠻里로 移營하여 18年이 되는 동안에 無主空城이 되었음으로 城壁은 勿論이고 諸般施設이 廢虛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後 水營으로 復基된 後부터 漸漸 諸般 設備 修理에 着手하여 萬全을 計하였을 것으로 推測된다. 隋圓形의 城壁은 周圍가 約2軒 가량으로 地形은 西部만이 小山을 抱含한 小高地로 되어있고 東南으로는 傾斜된 平濶한 石城이다. 堅固한 城壁은 外南高가 約三十餘尺이오 內南이 20尺의 高로서 外賊의 防禦에 士卒의 昇降과 貨物의 運搬에 便利하도록 되어 있다. 城間은 東西南北에 四大門이 있었으며 南門(現286番地)이 規模가 宏壯하고 東門(現114番地) 西門(現231番地) 北門(現155番地)이 各各 2層 建物로 되어 있었다.

城壁의 要處距里에 擁城을 築하였는데 擁城은 城面이 外部로 突出한 約 10坪 可量의 堅固한 小接城이다. 擁城을 築造한 理由는 賊이 遠方에 있을 때는 弓矢와 砲彈으로 防禦할 수 있으나 賊이 城底까지 突進接近할 때는 突出한 擁城이 아니고는 賊을 射退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擁城을 處處에서 城柱와 같이 城을 保護堅固케 하는 구실을 하였다.

各城門의 左右에는 勿論이오 砲彈과 弓矢가 及할 要處마다 擁城이 配置된 것을 모두 이러한 理由 때문인 것이다.

城中에는 排水構가 網羅되어 巨大한 水門이 西部의 高地를 除外한 北(現163番地) 東北(現116番地) 東(現114番地) 南(現2番地) 4處에 配置되어 東部の 河川으로 注入하도록 되어 있었다. 西大門은 日常 定時間으로 營中央에 있는 閉門櫻(觀海櫻)에 달아놓은 大鼓의 打鼓數로서 開閉하였고 各部에는 守門將이 있어 守備를 重히 하였다.

城上 各處에는 4角形의 穴을 配置하여 賊을 着望하며 弓矢砲彈을 射케 되었다. 築城의 工事を 考察하면 城의 外面 中部까지가 巨岩으로 되어 人力이라고는 想像치도 못할만큼 되어있고 間間히 下部岩石에서 彦陽 梁山 등의 地名이 刻書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策城 工事 責任을 各 郡府에 間數를 定하며 1壬한 것으로 생각된다. 碑文에도 刻書된바에 의하면 歷代水使中 城壁과 軍器의 修理에 있어서 冀大水使의 功이 크다.

· <水使의 權限 官制 施設>

水營은 軍門이며 水軍大將衛네이기 때문에 水使 到任 時에는 行列前에 各鉞을 세운다. 이것은 水使에게 先斬後啓의 特權이 付與되어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水使는 어구정(廣安842番地)에서 平時 射卒에게 砲矢試射 訓練시키고 每年 10月1日에는 1次式章臺(現廣安1121番地)에서 試科하여 及第者에게는 水使名義로된 初級武官先達이라는 官職證書를 授與했다. 또한 水使는 戰船을 製作하므로써 慶尙左道封山禁伐及監督의 特權이 있고 有事 時에는 所屬 各處에 臨陣起兵 또는 募兵의 權限이 있었다. 水營住民은 一種의 駐屯兵이라 大規模의 屯倉庫를 建設하여 平年에 所屬 各府郡縣으로부터 稅納하는 穀類를 徵收積置하여 士卒의 日常生活과 戰時의 非常軍糧

에 充足케 하며 그 밖에도 諸般生活에 관한 必需物品을 納入하고 屯番 國有土地를 耕作하여 不足 糧穀을 允當케 하였다.

官制로는 水使副射으로 虞候가 있고 任命權은 中央政府에 있었다. 虞候는 相當한 高官職으로 虞候衛門(現250番地)에 別途로 官制施設이 있었다. 水營城을 離한 東南海岸으로부터 要塞地인 捕弟鎮 甘浦鎮에는 各各 萬戶라는 俾將이 있어 亦是 官制施設을 別途로 가지고 있었고 水使直屬官으로서는 吏房 戶房 禮房 兵房 刑房 工房의 六房이 있었다. 各房의 任務는 輕重의 差가 있으나 中央政府의 制度에 準하였다.

그 외에도 軍官廳(軍事에 관한 全務廳)과 軍奴房(軍務에 관한 下8房)과 官奴房(官務에 관한 下8房 現91番地) 別砲廳(砲手弓手房 現86의2番地)과 教房(妓生音樂全習所 現189番地) 藏房(罪人因監房)과 守城廳(城의 守備全務所) 官廳(料理所) 通房(少年의 通引이 多有하여 輪番으로 水使를 奉見하고 官俗을 諫練한 後 官職에 昇進함)과 客舍(最大의 建物이며 官舍로서 國王의 殿牌를 待奉하고 每月 朔望 兩日에 水使가 持謁함. 現251番地)와 東軒(水使住宅)과 火藥庫(火藥을 貯藏한 倉庫 現117番地)와 軍器倉(現252地番)이 有하니 弓은 木弓과 角質製의 角弓과 鐵製의 鐵弓이 있으며 矢는 現弓矢와 같으나 矢端에 毒藥을 塗布하여 한번 皮膚에 中하면 藥氣로써 皮膚가 腐敗케 되었다. 連羅弓器는 現 製棉機와 같은데 動機하여 弓矢를 束八하면 連發數多하고 砲에는 大砲와 小砲가 있었다. 砲는 火羅砲이며 大砲는 現 牛車와 같은 車輛으로 運搬케 되나 車輛단은 角木板으로 製作되었다. 其他 戰胃戰服 造飯小鍋 八糧小袋 劍 戰矛大鎌과 馬栗釘은 強鐵製의 小栗과 같은 三角形의 釘으로서 如何히 投散할지라도 一釘端이 위를 向하므로 敗戰 退却時 人馬의 速步를 妨害하는 兵器였다.

<戰 船>

戰船에는 上營船所(水使 直轄 船所現廣安洞7番地)와 中營船所(虞候 直轄 船所 現廣安洞1番地)의 軍艦碇泊所가 別途로 있어 一段碇泊하면 風波 憂慮가 없었다. 戰船의 種類에는 巨艦(母艦) 突擊船 快速船 運搬船이 있고 船長이 日常 居處하는 官舍와 水使의 臨檢官衛가 있었다. 또는 陸地를

파궤에서 만든 燃爛江이 있는데 滿潮時에 入水하면 巨船이라도 潮流를 따라 入江할 수 있고 退潮時에 排水하면 陸地에서와 같이 자유롭게 船體外部를 火烟으로 燃燒하여 清潔 및 腐敗 防止作業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장간(鐵工所)이 있어 隨時로 造船 또는 修繕用的 鐵物을 全擔하였다. 周圍에는 賊을 探望하는 規夷臺(白山山脈東南地盡頭)와 望景臺(海水浴場北岸)가 있고 이것은 一種의 水使遊覽地로도 利用되었다. 烽火臺(菘山頂)는 賊의 出發 上陸 接戰 勝戰 敗戰의 情勢를 舉火數 또는 色으로서 中央政府에 報告 連絡하는 곳으로 烽火 宿直者가 常住했다. 章臺는 每年 11月 1日의 試科場이며 殺人囚의 執行場이며 高臺가 建立되어 있어 每時 水使가 臨檢하였다.

<敎 育>

敎育은 他地에 比하여 높은 水準에 있었다. 水營은 오랜 歷史를 통해 行政處인 동시에 水軍 中心地였기 때문에 官民 共히 無識하고는 그 任務를 完遂할 수 없을 뿐 아니라 文化가 首都로부터 流入되어 그 水準이 높고 또한 何學熱이 많아서 예로부터 漢文私塾이 各處에 散在하였다. 特히 中央에는 放海齊라는 半官半民의 漢文을 專攻하는 곳이 있어 數多한 人才를 養成시켰다.

放海齊는 그 후 新文化의 影響音으로 西紀 1905年 住民중의 先覺者들에 의해 私立 東明學校(南上面)로 設立되었다. 東明學校는 萬難를 무릅쓰고 新文化를 흡수하기 위한 敎育을 시켜 오다가 西紀1921년에 水營公立 普通學校로 되고 다시 水營 水常小學校 水營國民學校로 變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그 中間에 海雲臺 國民學校와 栽松一帶의 菘山國民學校 南川一帶의 南川國民學校를 分産시켜서 地方 初等敎育에 一 母體의 구실을 하여왔다. 한편 中等敎育施設이 全無하여 中學校入學難이 極함에 地方有志들은 夜間中學校를 創設하여 中等敎育을 補充하여 오다가 檀紀 4285년에 正規의 私立中學校로 昇進시켰고 그뒤 西紀 1956年 9月1日 다시 公立中學校로 改編되었다.

<最近沿革>

日本은 韓國 侵略政策을 遂行함에 따라 軍備施設을 해체했는데 먼저 中央의 五營門을 解散하고 各地方 陸海軍을 解體시킴에 따라 水營도 罷營되었으니 단기 4227年 水使 李秉承 在任時 였다.

그후 後任 水使 到任을 官民들이 鶴首期待 했으나 結局은 水營의 諸般 施設에 대한 監督守護는 東萊府使에게 넘어가고 水營은 東萊郡에 編入되어 南上面으로 改稱되니 五百年의 海軍 基地는 一朝에 農漁村으로 化하여졌다. 水營이 他地에 比하여 古蹟이 적고 遺傳의 古物이 稀少한 것도 一理가 있다. 즉 封山의 一木과 倉庫의 一物까지도 그 守護와 處決權이 모두 東萊府使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缺損一路 뿐이었고 古物保存에 대한 住民의 愛着心이 또한 없었기 때문이다. 그後 南上面은 南面으로 施名되고 謹紀 4276年 5月 附로 釜山府로 編入되어 釜山府 水營出張所가 設置되었다. 檀紀 4285年 當市の 再改編에의 事實을 略記하면 當時 水營出張所管下에 있는 海雲臺住民이 運動을 하여 市議會에서는 水營出張所를 廢止하고 海雲臺에 出張所를 移轉키로 決議하 였다. 이에 水營 住民들은 憤然 蹴起하여 그 不當性을 當局에 陳情하고 決議文을 提出하는 한편 文簿와 器具 運搬을 拒否하고 徹底한 籠城을 始作하여 全住民이 食事와 睡眠을 輪番으로 해가며 有事時에는 打鍾과 함께 田野에 勤勞하던 住民까지 集合하여 死守키로 했다. 市 當局은 威壓策으로 砲彈을 소라고 號令하게 까지했다. 이 籠城이 晝夜로 53日間을 繼續하다가 結局 佐洞 中洞 佑洞 栽松洞을 管轄하는 海雲臺出張所가 新設되고 南川洞은 大淵出張所 管轄로 되었으며 水營洞 望美洞 民樂洞 廣安洞 1.2洞만은 東萊區 水營出張所 管轄로 되어 元 水官의 殘體만이라도 挽回하게 되어 今日에 이르렀다.